

구직청년에 최대 360만원 수당... 취업시 150만원 더 준다

(월 60만원씩 6개월 간)

청년 정책·금융상품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비 지원 5년간 300만원... 취업연계 교육도 연 4.5% ‘청년 미래이음대출’ 출시 34세 이하 자영업자 운영자금 대출

일 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선호로 고용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졌고, 양질의 일 자리를 찾는 청년의 수요와 미스매치도 발생해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의 고용률은 45%로, 전년 대비 1.1%포인트(p) 내려 3년 연속 하락했다.

◆ 청년 취업지원 제도 확대

정부는 구직 청년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규모를 올해부터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2021년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대신해 도입됐다. 국취제는 저소득층·실업자·경력 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



청년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피고 있다. /뉴스시스

고, 최대 6개월간 총 3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도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국취제(1유형)는 15~69세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운영되거나 이전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며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단, 15~34세 청년에 해당한다면 중위소득 120%, 가구재산 5억원 이하로 조건이 완화된다. 실업이나 구직 기간 등 요건도 제외되는 만큼, 구직활동을 최근에 시작한 청년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34세 청년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할 수 있다. 국취제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지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격증이나 직업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발급 이후 5년 동안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 비용은 소득 수준이나 교육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교육기관은 취업

연계형 교육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 수혜가 가능하며, 국취제 1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의 본인 부담률도 낮아진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고용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도 개편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한 비수도권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에는 최대 48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지역별 인구감소율에 따라 비수도권 권역을 일반 비수도권 지역·우대지원 지역·특별지원 지역으로 차등하며, 청년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을 최대 720만원까지 확대했다. 단, 청년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은 장기 근속 장려를 위해 매 6개월마다 2년 동안 분할 지급된다.

◆ ‘문턱’ 낮춘 청년정책금융

구직·창업준비 청년을 위한 정책금융상품도 다수 출시됐다. 신용정보가 불충분한 청년도 낮은 금리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청년 미래이음대출’이 출시됐으며, 청년 자영업자를 위해 운영했던 기존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대출’도 한도와 상환기간을 대

폭 확대했다.

취업 준비 및 구직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다면 지난 3월 말 출시된 정책금융상품 ‘청년 미래이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미래이음대출은 취업·창업·정착자금 등 자금용도와 상환의지에 중점을 두고 대출을 심사해 신용이 불충분한 청년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한 상품이다.

청년 미래이음대출은 최대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연 4.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도 최대 11년(거치 6년·상환 5년)으로 길다. 단, 대출 대상은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및 취업·창업 1년 이내의 청년으로 제한된다.

창업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 자영업자라면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34세 이하의 자영업자라면 최대 3000만원까지 연 4.5%의 금리에 최대 7년(거치 2년·상환 5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2분기로 예정된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을 통한 이자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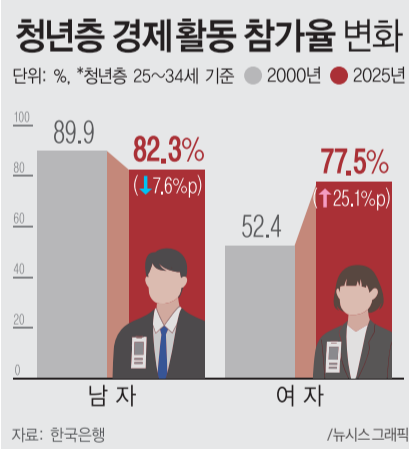
고학력 여성·AI 등 확산... ‘일하는 청년남성’ 비율 급락

한은,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 작년 82%... 15년간 7.6%p 떨어져 韓, OECD국가 중 하락폭 가장 커 산업구조 초대졸 이하 男에 불리해져

우리나라 남성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주요국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고학력 여성의 노동공급 확대와 저학력 남성에게 불리한 산업구조 변화, 고령화와 인공지능(AI) 확산이 청년 남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 노트-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추세 평가’에 따르면 남성 청년층(25~3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89.9%에서 2025년 82.3%로 7.6%포인트(p)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하락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크고 추세도 가파른 편으로 분석됐다.



밀레니얼 세대(1981~95년생)의 경제활동 참여 저하는 30대 후반까지도 이어졌다.

한은은 남성 청년층 경황을 하락의 대부분이 ‘쉬었음’과 ‘취업준비’ 증가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실제 2003~2025년 경황을 차이를 형태별로 분해하면 25~29세와 30~34세 모두에서 ‘쉬었음’과 ‘취업준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정규교육기관 통학이나 육

아·가사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보고서는 우선 고학력 청년층 내부 경쟁구조 변화에 주목했다. 1991~95년생 4년제 이상 학력 남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률은 61~70년생 같은 학력 남성보다 15.7%p 낮아진 반면, 여성은 10.1%p 높아졌다. 이에 따라 4년제 이상 청년층에서 여성의 노동공급 비중은 남성 대비 2000년 51.5%에서 2025년 95.5%로 높아졌다. 전문직에서는 남녀 비중이 거의 같아졌고 사무직에선 여성 취업자가 남성의 113.8% 수준까지 올라왔다.

반면 산업구조 변화는 초대졸 이하 남성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초대졸 이하 남성의 노동공급 확률은 2000년에 비해 2.6%p 낮아졌다. 제조업·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중·저숙련 일자리가 줄면서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결과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저학력 여성의 경우 제조업·건설업 비중은

낮고 보건복지 등 일자리가 늘어난 업종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 대조를 이뤘다.

고령화와 AI 확산도 청년층 신규 진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2004~2025년 고령층 고용률은 12.3%p 높아졌고, 상승분의 대부분이 고학력 일자리에 집중됐다. 또한 2022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감소한 청년층 일자리의 대부분인 98.3%가 AI 고노출 업종에 집중돼, AI 확산이 초기 단계에서 엔트리 레벨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한은은 남성 청년층 경황을 하락과 여성·고령층 경황을 상승 자체는 사회규범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공급이 다양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남성 청년층 경황률이 OECD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준까지 빠르게 하락한 점은 우려되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들어선 오티에르 반포 전경. /포스코이앤씨

오티에르 반포 청약 1순위 3만가구 몰려

평균 경쟁률 710대 1, 전타입 마감

당첨만 되면 2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오티에르 반포’의 청약 경쟁률이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오는 7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석달만에 잔금까지 해결해야 하지만 4만 6000명이 넘는 현금부자가 몰렸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오티에르 반포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710대 1로 집계됐다. 43가구 모집에 3만5400명이 접수해 전타입이 1순위 해당지역에서 마감됐다.

전용 59㎡B 타입이 15가구 모집에 1만7713명이 신청해 경쟁률 1180대 1을 기록했다. 59A와 84A의 경쟁률도 각각 939대 1, 769대 1에 달했다.

오티에르 반포는 앞서 특별공급에서도 평균 경쟁률 360대 1로 전타입이 마감됐다. 43가구 모집에 1만5505명이 접수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들어서는 오티에르 반포는 지상 20층, 2개 동, 총 251가구 규모다.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한 첫 단지다. 단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용 44㎡부터 115㎡까지 다양한 면적대가 공급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KTX·SRT 연결, 좌석 두배늘려 운행

국토부-코레일 ‘시범 중련운행’ 내달 16일 운행, 오늘부터 예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이 KTX와 SRT를 연결해 하나의 열차처럼 운행하는 ‘시범 중련운행’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KTX-SRT 중련운행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승차권 예매

는 오는 15일 오전 7시부터 가능하다.

중련운행은 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이어서 운행하는 방식이다. 운행 횟수를 늘리지 않고도 더 많은 좌석을 이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범 중련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이뤄진다.

호남선은 주말 수서~광주송정 구간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SRT(410석)에

KTX-산천(410석)을 추가해 좌석이 820석으로 늘어난다.

경부선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부산·포항~서울(상행), 서울~부산·마산(하행) 구간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원래 KTX끼리 이어진 채 다니던 열차를 KTX와 SRT 연결로 변경한다. 총 좌석 수는 동일하며 연결 운행에 따른 안전성과 이용편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월요일과 금요일 일부 열차는 코레일과 에스알이 추가로 확보한 SRT 차량을 연결해 좌석 공급을 확대한다.

중련운행 열차의 경우 출발 시간은 기존과 같지만 열차 구성이 달라, 예매할 때 KTX와 SRT를 모두 조회해야 한다. 승차권 예매는 코레일과 에스알의 모바일 앱과 누리집, 역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 할 수 있다.

시범 운행 열차의 KTX 요금은 SRT 수준으로 약 10% 할인한다. 수서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KTX도 동일하게 할인을 적용한다. 다만 할인을 받으면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